

투데이칼럼

따뜻함을 위한 선택, 화재 없는 겨울을 위한 실천

겨울이 성큼 다가오면서 전기장판, 전기히터 등 난방용품 사용이 급격히 늘고 있다. 찬바람이 불면 몸을 녹일 따뜻한 기기들이 절실해지기 마련이지만, 그만큼 화재 위험도 높아지는 것이 겨울철의 특성이다. 단 한 번의 부주의가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난방기기 사용에 대한 경각심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소방청 통계로 최근 5년간 전기장판과 전기히터 등 전열기기로 인한 화재는 총 2,390건에 달하며, 이 중 약 40%가 12월과 1월에 집중됐다. 대다수는 사용자의 부주의가 원인으로, 난방기기를 전 채 외출하거나 취침하는 습관, 가연성 물질을 가까이 둔 채 사용한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작년 겨울, 전북 한 농가에서는 전기장판을 꺼놓지 않고 외출했다가 화재가 발생해 1층 전체가 전소되는 사고가 있었다.

‘잠깐이니깐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겹잡을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진 것이다. 수 없는 피해로 이어

이에 겨울철 난방용품을 사용



최길웅

부안소방서장

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소개한다.

첫째, 안전한 난방기기 준비와 점검이 필요하다. 난방기기는 사용 전 반드시 KC 인증 등 국가 공인 안전 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해야 하며, 장기간 보관한 제품을 꺼냈을 경우, 전선 피복이 벗겨져 있거나 열선이 눌린 흔적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이상이 있다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교체해야 한다.

둘째, 올바른 사용 환경을 유지해야 한다. 전기히터는 반드시 벽에서 20cm 이상 떨어진 장소에 설치하고, 그 주위에는 종이박스, 의

류, 커튼 등 불에 잘 타는 물건을 두지 않는다. 전기장판은 접하지 않도록 평평하게 펴서 사용하고, 위에 무거운 물건을 올려두지 않는다.

셋째, 전기 콘센트와 플러그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난방기기는 전용 콘센트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콘센트에 플러그를 느슨하게 꽂거나 먼지가 쌓인 상태로 방치하는 것도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의 플러그는 뽑아두고, 콘센트와 밀티탭은 수시로 먼지를 닦아주는 습관이 필요하다.

넷째, 주택용 소방시설을 반드시 구비해야 한다.

시 구비해야 한다.

화재는 불시에 발생한다. 감지기는 화재 발생을 빠르게 인지하고 경보를 울려 대피 시간을 벌어주며, 소화기는 작은 불씨를 직접 진화할 수 있도록 돕는다. ‘소화기는 한 가정에 한 대 이상, 감지기는 방마다 한 개 이상’이라는 원칙을 기억하고, 주기적인 점검과 교육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다섯째, 평소 실천을 생활화해야 한다.

화재 예방은 잠깐 자리를 비울 때도 난방기기를 꺼두는 습관, 하루에 한 번이라도 콘센트를 점검하는 습관, 가족과 함께 화재 대피 요령을 이야기해보는 습관이 모여 안전을 만든다. 아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아이가 혼자 전기기기를 조작하지 않도록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다.

난방기기는 우리 가족을 따뜻하게 해주는 소중한 도구이지만, 잘못된 사용은 순식간에 생명과 재산을 앗아갈 수 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집 난방용품부터 점검해보자. 따뜻한 겨울을 위해, 안전이라는 약속을 지켜야 할 때다.

사설

새만금 개발 기대감

올해 국정감사에서 새만금 얘기는 빠지지 않았다. 그만큼 문제와 논란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북도민들에게 막연한 기대감만 심어주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할 대목이 많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올해 안에는 뭍 거라든 새만금특별자치단체 출범이 해를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행정 통합이 아닌 연합 체제 형태로, 지자체 간 갈등을 풀고 상생 발전을 꾀하는 취지로 추진해 왔지만, 답보 상태다.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나왔다. 어느 의원은 3개 시군이 최종적으로 합의 안 돼서 불발된다는데 그러면 어떤 대안 같은 게 있느냐고 물었다.

김 지사는 지자체가 반대한다면, 대안을 찾기 쉽지 않을 거라면서도, 내년 지방선거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희망적인 해석을 내놨다. 내년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

를 앞두고 공약으로도 자연스럽게 분출되지 않을까 싶다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거라는 식의 막연한 비전 제시다. 1심에서 패소한 새만금 공항 건설 계획을 두고도 전북도와 전북정지권이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새만금은 국가가 국가 정책사업으로, 예타 면제사업으로 결정을 한 것이다. 그런데 법원이 경제성 논리로 이것을 하라 말라고 했다.

새만금 사업에 대한 장밋빛 약속들은 정부 역시 마찬가지다. 새만금 K-푸드 수출 허브 단지가 실속이 있느냐, 실행 가능한가.

이 용역도 또 전북 도민을 속이는 용역이다. 지금 매립이 안 돼 있는 마당이다. 지지부진한 새만금 사업에 수십 년간 반복돼 온 희망 고문으로 전북도민들은 지쳐가고 있다.

이길여 가천대 총장

올해 93세인 이길여 가천대학교 총장(가천길재단 회장)이 자선 골프 대회에서 꽃꽂한 자세로 스윙하는 모습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유튜브 채널 ‘길병원TV’에는 최근 이 총장이 ‘제2회 가천심장병어린이돕기 자선 골프 대회’에서 시타하는 영상이 올라왔다.

이 총장은 자주색 상의와 흰색 바지, 검은색 선캡 차림으로 등장했다. 그는 사회자의 “하나, 둘, 셋” 구호에 맞춰 스윙한 뒤 완벽한 퍼니시 자세를 보여줬고, 참석자들은 박수를 보냈다.

누리꾼들은 “누가 SNS에 이 영상 올렸길래 낱자 조작한 건 줄 알고 찾으러 왔는데 진짜였다”, “유전자 분석이 필요하다”, “멋지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1932년생인 이 총장은 공식 석상에 등장할 때마다 나이를 믿기 어려운 외모와 건강한 모

습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2023년 가천대 축제에 이 총장은 가수 사이의 공연을 앞두고 직접 무대에 올라 “우리는 가천 스타일”이라며 말춤 선보였다.

서울대 의과대학을 졸업한 이 총장은 1978년 여의사 최초로 의료법인을 설립해 종합병원 길병원을 세웠다. 현재는 의료·교육·문화·봉사·언론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국내 최대 공익 재단 가천길재단을 이끌고 있다.

이길여(李吉女) 총장은 군산 대야초와 이리여중, 이리여고를 졸업했다.

그는 해마다 모교의 6학년 학생들을 초청해 ‘선배’가 일군 병원과 대학을 보여주면서 “나도 할 수 있다”는 자부심과 꿈을 키워준다. 이리여고의 기숙사와 강당도, 건립을 지원해줬다. 이 총장의 호를 붙여 ‘가천학사’ ‘가천관’이라 부르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기념 촬영하는 G7 외교장관 회의 참석자들



11일(현지 시간) 캐나다 온타리오주 나이아가라온더레이크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한 각국 외교장관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여성에 대한 폭력, 이제 그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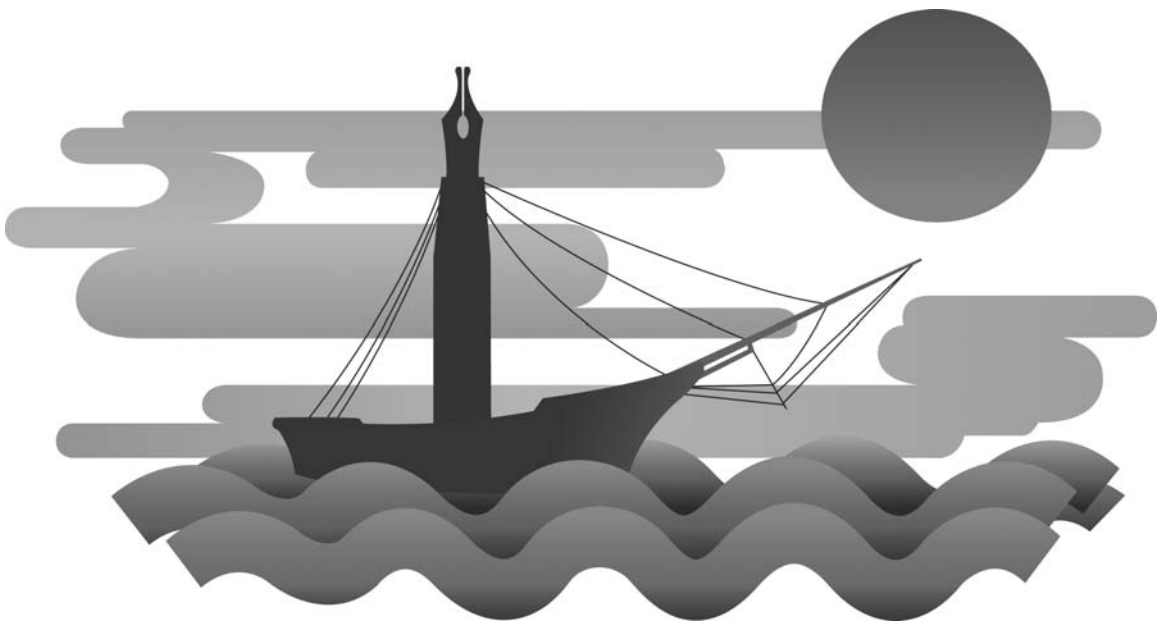


11일(현지 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에 반대하는 집회에 참석한 여성들이 폭력 희생 여성들의 이름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